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000	학번	000
이메일	Kys11011@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전공) University of Kentucky/IPPMI	(국가) 미국
기간	2022.1.10~2022.12.15	[귀국일: 2021년12월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1월 28일

신청인 : _____ 0 0 0 _____ (인)

1. 렉싱턴 생활관련

(1) 렉싱턴

렉싱턴에 오기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켄터키라는 곳이 완전 시골 아니냐", "가면 옥수수밭 밖에 보이는 것 아니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만 먹는거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22.12.26 켄터키 대학교가 있는 렉싱턴 블루그라스 공항에 도착하여 보게 된 렉싱턴의 첫 모습은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광활한 초원들 위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켄터키 렉싱턴은 켄터키 주에서 루이빌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약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경마가 유명하며 도시의 구조가 한국의 춘천과 비슷합니다. 도시의 크기가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백화점, 영화관, 각종 유명 레스토랑 등 있을 건 다 있으면서도 도시 크기 대비 인구가 많지 않아 도시 전반적으로 한적하고 여유롭습니다.

렉싱턴은 미국내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어 중부가 아닌 동부표준시를 적용하여 한국과는 시차가 14시간 납니다. 그래서 켄터키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같은 켄터키주이지만 시차가 1시간 차이나게 됩니다. 아마 렉싱턴의 장점 중의 하나는 지리적 위치가 좋아 차로 여행을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차량 기준으로 렉싱턴에서 시카고와 애틀랜타가 6시간, 인디애나폴리스 3시간, 올랜도 13시간, 워싱턴 8시간, 뉴욕 11시간, 텍사스 13시간 등 미국 중동부 지역은 모두 차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차량으로 1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는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다만, 서부는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만에 갈 수가 없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여름방학 때 약 한달정도의 계획을 잡고 차량으로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2) 날씨

날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있습니다. 다만, 한국보다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습니다. 아마 1월달에 처음 렉싱턴에 오게 되면 추운 날씨와 눈, 비 때문에 잘못 온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월이 지나면서부터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셔서 조금만 참으시면 분명 렉싱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눈이 오는 경우 자유롭게 아무곳에서나 썰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 와서 눈이 오는 날은 항상 썰매 가지고 주변 공원이나 아파트 근처 언덕으로 가서 하루 종일 썰매를 타고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때의 기억이 좋은지 한국으로 가기 전에 한번만 눈이 더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비 가장 좋은 것은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이곳에 오고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하늘과 공기는 항상 맑았습니다. 이 곳이 공기가 맑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름에 볼 수 있는 반딧불입니다. 여름 저녁이 되면 집 주변에서 많은 반딧불을 볼 수 있고, 반딧불들이 내뿜는 빛들을 벗삼아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딧불을 보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방문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름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맑은 공기일 것 같습니다.

(3) 치안

또한, 렉싱턴은 치안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항상 차에는 중요한 물건을 놔

뒤서는 안되며 항상 경계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나오는 미국 내 타 도시의 각종 총기사고 등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 렉싱턴에서 살아보니 렉싱턴은 매우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렉싱턴이라는 도시 특성상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운전을 할 때 보면 이 곳에서는 경적 울리는 소리를 거의 듣기 힘듭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경적을 울리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서 대부분 다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백인의 비율이 매우 높아 흑인이나 멕시코 쪽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신시내티만 가더라도 흑인이나 멕시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렉싱턴에서는 축제 등을 하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흑인이나 멕시코 사람들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이곳에 계시면 한국처럼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4) 물가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물가가 변동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제가 있었던 1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름값의 경우 여러 도시들을 다녀본 결과 켄터키, 특히 렉싱턴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제가 처음 1월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갤런당 약 \$2.5 정도 했었는데 이 가격이 \$4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약 \$3.0~3.5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부의 경우 렉싱턴 대비 약 1.5에서 2배정도까지 기름값이 비싸고, 시카고, 애틀랜타, 신시내티의 경우 20~30% 정도 기름값이 비쌉니다. 제가 여름에 렉싱턴이 약 \$3.9였을 때 서부로 여행을 갔을 때 LA가 \$6.5였습니다. 그래서 렉싱턴에서는 가득 채우도 \$50~60였는데 LA에서는 가득 채우니 \$100가 나와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의 경우에도 1월 대비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예년 대비 많이 오른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미국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내 지역을 결정하실 때 서부나 동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름값이나 렌트비 등이 저렴한 켄터키 렉싱턴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금의 경우 켄터키는 미국 내에서 가장 저렴한 6%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 상품가격 외에 별도로 세금이 붙게 됩니다.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값 + 세금 + 팁(보통 점심은 15%, 저녁은 20%)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켄터키와 가까운 신시내티는 7%, 시카고는 10.25%, 애틀랜타 8.8% 등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켄터키가 세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샌디에고와 많이 고민을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곳을 선택한 것이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거주지(버몬트 아파트)

렉싱턴에 UK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버몬트(Beaumont) 지역에 거주를 가장 많이 하시고, 다음으로 레이크사이드(Lakeside)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작년에 계셨던 분에게 테이크 오버를 받아 버몬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버몬트 지역은 자녀 교육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라 좋은 직장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던바(Dunbar)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IVY 리그로 보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몬트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차로 2분거리에 '로사파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그래스 공항에서 약 5분거리이기 때문에 지리, 교육환경 등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목동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몬트 지역 내에서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버몬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들 미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부자동네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매우 깨끗하고 동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버몬트 지역이 잘사는 동네라고 느낀 것이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학교가 무료 급식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른 지역은 그대로 무료 급식을 해주는데 버몬트 지역 내 학교는 유료 급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버몬트 지역의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끔씩 아침에 진행되는 학교 행사에 참석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참석을 하는데 이 지역에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몬트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아파트 바로 옆에 대형 크로거(Kroger) 마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집 근처에 도보로 대형마트를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코스트코나 샘스를 이용하시지만 소규모 가족이시거나 물건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크로거 마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로거 마트 안에 '리틀클리닉'이라는 병원(한국의 의원 같은 곳)과 약국이 있어서 몸이 아픈 경우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차로 3분 거리에 YMCA가 있습니다. 한달 이용료(4인 가족 기준 \$89)를 내면 실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설로는 수영장, 농구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 중 수영장은 25m 레인이 6개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큰 직사각형 온수 풀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워터파크를 제외하고는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곳에는 온수 풀장이 있어 아이들과 재미있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타 지역 YMCA의 경우 수영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더라도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야외 풀장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족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도 매우 좋고 YMCA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 있는 경우 가입하셔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몬트 아파트가 단독 주택에 비해 좋은 점 중의 하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소에 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와서 수리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줍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고 수리를 해야 하는데 버몬트 아파트는 관리비에 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름 방학동안 장기간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싱크대가 역류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지만 관리소에 긴급 유지보수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출동해서 막힌 배관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버몬트 아파트 관리소에서 정기적으로 기념일마다 행사나 파티를 개최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미국의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여름에는 아파트 내 야외 수영장 2곳을 오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족들과 수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손세차를 할 수 있는 곳도 2군데 있어 자유롭게 차량 청소가 가능합니다. 집은 오래되서 낡고 가끔 벌레도 나타나긴 하지만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가성비가 매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6) 자녀학교

저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라 '로사파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버몬트 지역이 교육환경이 좋다 보니 많지는 않지만 백인들 외에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등이 살고 있어 로사파크 초등학교의 인종 비율을 보면 약 30%가 백인 이외 타 인종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학교에서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ESL 수업과 선생님이 있는 등 아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높습니다.** 면담 등을 할 때도 타 국가 가족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항상 각 나라의 통역사를 같이 대동해줍니다. 제가 듣기로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학교를 가게 되면 낯선 환경과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로사파크 초등학교에서는 한 반에 2명씩 한국인 아이들을 같은 반에 배정해서 서로 의지하게끔 해주어 아이들이 그나마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이 곳을 거쳐갔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필요한 학교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입국, 귀국시 필요한 서류들도 잘 떼어 줍니다.

아마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클래스 도조'라는 어플을 통해 담임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주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미국은 수업 분위기가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수업 시간 중에 아이들이 영화 관람을 하거나 독서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주었는데 교실에서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서 영화나 책을 보는 등 교실을 집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길러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타 지역에 비해 등교 시간이 7시 45분으로 좀 빠릅니다. 타 지역은 8시 45분으로 한국과 비슷한데 이 곳은 7시 45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가시는 분들은 보통 7시 20분 정도에 집을 나서고 차로 데려다 주시는 분들은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교 시간은 14시30분입니다.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픽업하시거나 애프터 스쿨 학원에서 아이를 픽업해갑니다. 애프터 스쿨을 해주는 학원의 경우 보통 저녁 6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직접 부모님들이 학원으로 아이를 픽업가야 합니다. 가격은 주당 약 \$75~100 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시간당 가격이 비싸지만 미국 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YMCA, 태권도 등이 있으니 애프터 스쿨 학원에 보내시는 것도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오시자마자 바로 학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YMCA의 경우 가성비가 가장 좋은데 1월에는 자리가 아예 없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8월이 되어야 자리가 새로 생기니 그 전까지는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8월에 YMCA에 등록하셔서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이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미리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첫째 아이의 경우 영어가 들리니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영어를 모르는 둘째 아이의 경우(주변 다른 집 아이들도 보았을 때) 적응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달래느라 애를 먹었는데, 거짓 말처럼 여름 방학이 지나니 학교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약 6개월 정도가 지나니 귀가 트이고 말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오히려 발음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첫째보다 여기서 영어를 배운 둘째가 훨씬 좋고, 진짜 스피치처럼 금방 영어가 늘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아**

이가 처음에 와서 힘들어해도 다그치지 마시고 잘 다독여 주시면 분명 아이가 적응해서 학교에 즐겁게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적응을 하니 나중에 한국에 가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7) 의료

미국에 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입니다. 한국과는 다른 의료시스템이 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으로 오실 때 가입한 해외여행자 보험으로 치과 치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치료를 실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911 구급차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상상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올해 같이 왔던 분 중 아이가 새벽에 열이 나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크게 치료해준 것이 없음에도 비용이 약 \$3,000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 비용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은 자기 차로 병원을 가고, 응급실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병원이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급한 경우 예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Urgent care'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곳은 일반 병원보다 금액이 비쌉니다. 그 외에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화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언어가 걱정인 분은 예약할 때 한국인 통역을 요청하시면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한국에 있는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접수일의 환율로 계산되어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게 되면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치과의 경우, 렉싱턴에 한국인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두 이 분에게 치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연수 중인 한국인들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 같은 건 그냥 해주시기도 합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진료와 X-ray 촬영은 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자연적으로 이빨이 썩어서 레진이나 크라운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음식을 먹다가 혹은 부딪혀서 이빨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되어 임플란트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해의 경우 케이스마다 인정요건이 다르니 꼭 한국 담당자에게 보상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치과 치료는 한국에 비해 비용이 약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신경치료가 약 \$1,000 입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오셔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다양한 상비약을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단순 감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마트에서 약을 구매하여 드시면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약을 지어주지 않고 그냥 집에서 푹 쉬고 비타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8) 주변환경

렉싱턴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뽑는 단점은 바로 H마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동양마트와 서울마트, YUYU 마트라는 곳이 있긴 한데 규모가 작

고, 가격도 비싸서 항상 H마트가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카고나 애틀랜타를 가게 되는 경우 H마트나 메가마트와 같은 대형 한국마트에 들러서 꼭 장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월마트, 크로거, 타켓, 홀푸드, 코스트코, 샘스와 같은 다양한 마트들과 레스토랑들이 있고, 영화관, 백화점(메이시스, 딜라이드)도 있어 아마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5군데 있고, 사립 골프장도 많이 있어 원하시는 곳을 골라서 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이용 비용(카트 포함, 18홀 기준)도 가장 저렴한 곳이 \$25, 가장 비싼 곳이 \$50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 버몬트 아파트에서 5분거리에 야외 골프 연습장도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곳에 연간 회원권을 등록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Full 멤버십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 무제한 연습장 공 제공, 레슨 4회, 피팅 1회, 어프로치 레슨(주 1회)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골프용품 구매시에도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회원권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 대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막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버몬트 아파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코스트코도 차로 약 3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렉싱턴에 있는 공원 중에서는 '제이콥슨 공원'이 가장 큰데 호수 옆에 있어 배도 탈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큰 놀이터도 있어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피크닉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버몬트 아파트에서 가까운 'של리토 공원'은 야구장과 디스크 골프장, 산책로가 있어 주말에 아이들과 산책을 하거나 주니어 야구경기를 관람하시기에 좋습니다.

(9) 금융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금, 한국에서 가져온 신용카드, 미국에서 만든 직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직불 또는 신용카드를 만드시기 전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카드로 '트래블월렛'이 있습니다. '트래블월렛'은 미리 외화를 충전해서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으로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1,500 한도 내에서 수시로 충전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드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환율이 매번 다르다 보니 충전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렉싱턴에 오시게 되면 체이스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직불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체이스 은행의 경우 잔고가 \$1,500로 한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 달에 보관 수수료 \$12를 1회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받을 때는 Zelle 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한국의 카카오톡 송금처럼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송금하면 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직불카드는 계좌를 만들고 난 후 약 10일정도 있다가 우편으로 오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결제시 마다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점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SSN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렉싱턴에 오시고 1달이 지난 후에 SSN을 신청할 수 있는데 J1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SSN을 발급받으신 후 체이스 은행에 가시면 무제한 적립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마다 적립이 되고 할인 혜택도 많이 제공합니다. SSN 신청하는 것

이 귀찮아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적립금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꼭 최대한 빨리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0) 보험

의료관련 보험의 경우 켄터키 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한국에서 가입하시는 해외여행자 보험만 있으면 학교 보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렴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KDI에 계실 때 소개받으시는 장규철 대표님이나 월드항공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차량 보험은 아마 이곳에 오시기 전에 프로그레시브 보험을 들게 되실 겁니다. 미국은 차량 보험을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프로그레시브 보험을 사용하시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프로그레시브를 사용하다가 다른 보험에 견적을 내 보았더니 스테이트팜 보험이 훨씬 저렴해서 이후 6개월은 스테이트팜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은 보험을 직접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해지를 안하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집 보험이 의무입니다. 아마 프로그레시브를 가입하실 때 집 보험도 같이 가입을 하실텐데 집 보험은 차량 보험과 달리 1년을 가입합니다. 만약 6개월 후에 차량 보험을 변경하시는 경우 집 보험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11) 통신

미국에 오시면 전화통화를 위해 통신사를 가입하시고 유심을 구매하셔야 하는데 렉싱턴에 계신 분들은 민트모바일이 가성비가 좋아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저희 때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90로 6개월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을 때는 1개월에 무제한 인터넷 요금제가 \$30 입니다. AT&T나 T-MOBILE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평상시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버몬트 아파트의 경우 유선 인터넷은 스펙트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스펙트럼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회사 제품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유선 인터넷에 WIFI도 포함되어 있고 속도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12) 의류

미국에 와서 좋다고 느낀 점 중의 하나가 한국에서 비싸게 주고 샀던 폴로, 타미, 나이키 등의 메이커 의류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각 브랜드 별로 쿠폰 등 할인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렉싱턴 인근에 우리나라의 여주 아울렛 같은 아울렛도 2군데(루이빌, 신시내티)가 있어 옷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폴로 같은 경우 아울렛에 가면 기본적으로 30~40%의 세일을 하고 쿠폰이 있는 경우 추가로 2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기하게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의류 로드샵 매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브랜드별로 매장이 별도로 많이 있는데 미국에는 매장이 없어서 메이시스, 딜라이드 같은 백화점을 가거나 아울렛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도 아울렛에서 옷을 사거나 인터넷을 통해 옷을 구매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렛 이외에는 티제이맥스, 마샬, 로스와 같은 소규모 아울렛 매장에서 옷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일반 아울렛 매장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폴로, 타미 같은 브랜드의 옷들도 판매하고 가격도 아울렛 보다 더 저렴합니다. 렉싱턴에는 티제이맥스 1곳, 마살 2곳이 있으며 수시로 옷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마다 방문하시면 좋은 브랜드의 옷들을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University of Kentucky IPPMI 수업관련

저는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비학위 과정인 IPPMI 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IPPMI 과정은 비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학위과정처럼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커리큘럼에 따라 1년간 수업을 받게 됩니다. IPPMI는 한국인 김두옥 교수님이 운영 중에 있으며, 1년간 미국 문화 및 생활관련 영어, 미국 행정기관 특성 및 운영방식, 미국 행정기관 인턴쉽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및 생활관련 영어학습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 2명의 교수님이 교대로 가르치시고, 미국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1명의 교수님 직접 수업을 하시거나 실제 행정기관에 계신 분을 초청하여 특강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미국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인턴쉽을 진행하게 됩니다.

켄터키 대학교의 IPPMI 비학위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KDI에서 온 학생들과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등 일반 지자체에서 직접 연수를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약 5:5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진행되는 커리큘럼의 목표가 향후 IPPMI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근무하는 분야의 업무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이 높으며 강의 내용도 한국과 미국 행정시스템 비교 등 유익하고 알찬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켄터키 대학교 IPPMI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미국의 의료, 관광, 인구정책 등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시스템과 비교하여 무엇이 충분하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직접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자신의 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관심분야가 있는 경우, 교수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직접 그 부분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도 해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더 얻어가시는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IPPMI 비학위과정은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에 따라 습득하는 배움의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기회로 여기고 본인의 연구주제나 관심분야를 교수님들에게 어필한다면 교수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과정보다도 훨씬 더 깊이있고 가치있는 지식과 경험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3. 여행관련

켄터키 IPPMI 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1년간 크게 2번의 기간동안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1주일간의 봄방학과 약 2달반 정도의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이 때는 아이들의 학교와도 방학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미국내 여행을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1주일의 봄방학기간에는 렉싱턴에서 12시간 정도 내에 있는 도시를 많이들 다녀오십

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로 시카고나 애틀랜타, 좀 더 장거리로는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다녀오십니다. 여행을 하실 때 저희가 많이 이용한 것은 '호텔스닷컴' 사이트입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있지만, '호텔스닷컴' 사이트의 경우 10번 이용을 하면 1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0번 이용 금액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금만 내면 됨). 여행을 가시게 되면 정말 가까운 신시내티나 인디애나폴리스를 제외하고는 당일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일 이상을 숙박을 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꾸준히 '호텔스닷컴'을 사용하신다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하실 때 중요한 것은 최소 평점이 8.0 이상인 곳을 고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점이 8.0 이하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데 이런 곳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베드버그나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주차된 차량 내 물건이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예약을 할 때는 돈을 좀 지불하고서라도 8.0 이상이 되는 곳을 골라서 숙박을 했었고, 숙박 시설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모두 만족했고, 특별한 피부병이나 도난 사고 등도 없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보통 차로 서부여행을 30일 정도 다녀오시거나 LA나 라스베이거스 등 특정 도시를 정해 비행기로 짧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중부나 동부 여행중에는 고속도로 상에 주유소나 음식점들이 자주 나와 장거리 여행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부여행은 동부처럼 주유소나 음식점들이 자주 나오지 않고 주변도 온통 사막이기 때문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기름이 없거나, 차량이 고장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유소나 음식점들이 나오는 경우 필히 들리셔서 개인정비 등을 하셔야 합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전화가 안터지는 경우도 많아 여행을 떠나시기 전 꼭 차량 정비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보낸 1년은 저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만큼 아주 중요하고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지식도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뿐이었는데, 이번에 직접 와서 1년간 살면서 행정, 의료,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장점과 단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켄터키 대학교의 IPPMI 과정을 통해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미국의 행정기관들을 직접 체험하고 그 시스템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마도 많은 후배님들이 나라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켄터키 IPPMI 과정을 선택한 것을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오기 전 여러 사람들로 부터 '켄터키가 시골이다', '왜 샌디에고를 가지 않느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와서 생활을 해보니 켄터키라는 곳이 서부나 동부보다 물가는 훨씬 저렴하면서 도시에 있을 건 다 있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며 항상 붐비지 않고 여유가 넘치는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켄터키 렉싱턴을 선택할 것입니다.

켄터키 대학교의 IPPMI 과정도 타 학위과정보다 부담은 없으면서도 학교 측에서 준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본인의 업무역량을 한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렉싱턴이라는 도시와 켄터키 대학교의 IPPMI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에 후회는 없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